칼 럼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자녀 장가보내고 시집보내기

우리말은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데 자녀를 장가보낼 혼(婚)과 시집 모낼 인(姻)을 합성해 혼인(婚姻) 이라 하며 부모는 자녀를 혼인시키고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에 순종해 혼인한다. 우리는 부모가 만들어준 육체적 피조물에 하느님이 심어준 영혼에 의해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나의 주인은 부모와 하느님이다. 주인은 피조물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식은 부모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 성장하게 하며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 교육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종족 보존의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장가보내고 시집보내 후손을 보아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며 보람이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 성장시킨 피조물로서 부모의 뜻에 따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며 이것이 효도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바치는 가장 큰 효도는 장가가고 시집가 대를 잇는 후손을 낳아 주는 것이다.

주고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 하는 데 부모는 자녀를 도와서 사랑으로 양육했다,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베풂의 도는 혼인하는 것인데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며 하느님을 뜻을 배반한 죄인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 서둘러 자녀 혼인할 준비를 해야 하며 자녀는 서둘러 짝을 맞아 혼인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모님! 나를 이렇게 두려면 무엇 하러 낳았소!" 이 말은 혼인을 못 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원망의 하소연이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둔 최대의 목적은 혼인 시켜 대를 잇게 하는 것이며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사연이고 관심사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 가지만, 종족 보존의 대를 잇는 일을 하고 생을 마친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과제가 종족 보존을 위해 우수한 자녀를 낳아 길러 혼인을 시켜 후손을 보아 대를 잇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종족 보존의 후손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후손이 없이 생을 마치는 것은 삶이 모두 허무로 끝나 버린 것이며 하루살이만도 못한 삶이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며 불효다.

혼인 당사자인 자녀는 자기의 여건을 파악하여 눈높이에 맞는 짝을 맺으려는데 노력해야 하며 자기의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상대자를 고를 수 없다. 이는 부모가 중매쟁이를 통해 혼인시키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눈높이를 낮추면 혼인 상대를 발견할 수 있다. 줄탁동시(啄同時)란 말이 있는데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껍데기를 쪼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 닭이 밖에서 알껍데기를 쪼아 병아리가 쉽게 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 효도하기 위해 혼인하려고 노력하고 부모가 모든 여건에 맞는 눈높이에 의해 자녀 혼인을 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혼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은 陽+ 과 陰-- 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에 날 저물 昏자를 써서 혼례라 했다. 혼례식 사회자가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가 아닌 혼례식 또는 혼인식을 거행 하겠습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婚姻과 結婚이란 말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婚姻이라 하고. 婚-장가들 혼자는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이고, 姻-시집갈 인자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으로, 婚姻은 남자가 장가를 가고,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이나 민법에서도 婚姻이라 했다. 結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만 있어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에서 쓰는 말이고. 또한 이 단어는 일제의 잔재로써 일제 이후에 쓰기 시작한 말이며 쓰지 않아야 할 단어이므로 우리는 婚姻이라 말해야 바른 표현이다.

축의금 봉투에도 祝賀 儀, 祝 婚姻, 祝 成婚, 祝 華婚, 祝 盛典, 謹儀 등을 쓰고 祝 結婚이란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상기와 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용어를 두고 어디서부터 잘못 사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른 표현을 사용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 후진국이었으나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잘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해마다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수가 줄어들어 염려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가 혼인을 못 시키고 있는 자녀가 많은 데 국가와 부모는 자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 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둘러 혼인 여건을 조성해 혼인하여 효도하고 나라의 장래 희망이 밝게 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 기습폭설 대비 제설대책 점검해 보자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일찍 찾아온 추위에 강원도 일부지역에는 서리까지 내렸다고 한다.

엊그제 가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성큼 우리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규칙한 기상여건에서 갑작스런 눈이라도 내리게 될 경우 당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과 혼란을 겪게된다.

제설작업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눈이라도 온다면 당연할 것이다.

강추위에 대비해 제설대책을 다시한번 서둘러 점검해 봐야할 듯 싶다.

매년 기습 폭설로 인하여 출근길 교통과 비닐하우스 붕괴로 인한 농산물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서둘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추운 날씨에 갑작스레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쌓이게 되면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게 되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더욱이 고갯길이 많고 응달진 급커브길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적설량이 많더라도 주요구간에 대한 제설작업만 제대로 이뤄지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겨울철 예기치 않은 폭설 등에 대비해 제설 장비·인력·자재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설대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관련기관에서도 제설대책을 완벽히 수립해 놓고는 있겠지만 예상을 벗어난 폭설이 내릴 경우 준비한 인력과 자재 운용면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운전자는 폭설에 대비해 체인 등 월동장구를 갖추는 한편 시설하우스 농가 또한 폭설에 대비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온 이상화로 날씨 변덕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엔 유비무환의 자세가 그 어느해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재해피해는 어쩔수 없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